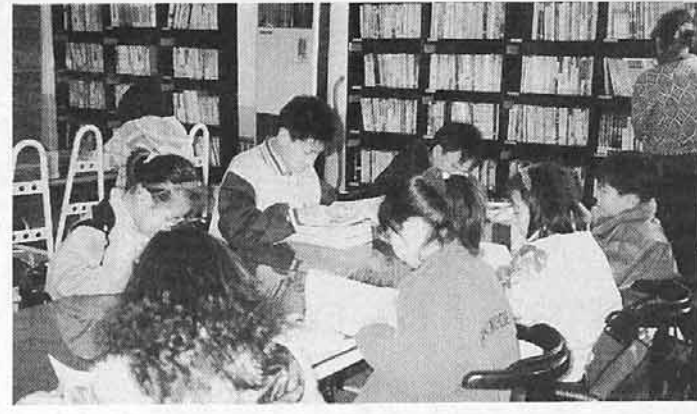


어린이 → 놀이방
 청소년 → 공부방
 주부 → 부어른비
 노인 → 경로공간



◇ 복지관의 도서관은 학교 수업을 마친 어린이들의 넉넉한 문화휴식 공간이다.

불교사회복지관은 “자비실천 도량”

전국 25곳...재정·인력 확보등 확충계획 필요

관세음보살의 화신처럼 때로는 어머니로 때로는 아버지, 선생님으로 지역사회의 주민들의 대대적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불교 종합사회복지관들.

불교계에서 위탁운영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들이 그 영역을 점점 넓혀가며 지역 주민의 생활과 신앙을 복지혜택으로 묶어내고 있다.

수업이 끝나는 오후 1시, 동해(기라국고2학년)는 가방을 메고 삼전종합사회복지관 공부방으로 향한다. 엄마와 아빠가 일하러 나간 시간, 동해는 복지관 공부방에서 숙제도 하고 또 잘 모르는 산수문제를 공부방 선생님께 물어도 본다. 그리고 잠시 쉬는 시간을 이용해 친구들과 선생님을 재미있는 놀이도 배운다.

이곳 삼전복지관을 비롯 교계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전국 25곳의 거의 모든 복지

관에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공부방과 독서실 주민을 위한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다. 국민학생부터 고등학교에 이르는 이용자를 대부분이 저소득층 자녀들로 복지관에 마련된 공부방과 독서실에서 공부도 하고 취미생활도 즐기며 방과 후 시간의 대부분을 보낸다.

“사회적으로 맞벌이부부가 늘어나고 있고 부모들이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어린이들과 청소년을 위한 공부방과 독서실이 꼭 필요합니다.” 어린이 교실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삼전복지관 이명영복지사의 설명이다.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이들 공부방과 독서실은 부모와 교사의 1인2역을 해가며 지역사회의 안정과 어린이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교육공간으로써 지역활을 다하고

기회를 열어주기도 하고 또 노인들의 여가지도와 만남의 공간 제공, 경로잔치, 노인학교운영 등 지역노인들에 대한 복지사업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각종 상담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고 있다.

“복지관의 지역내에서의 활동이 확대되기 위해서 더 많은 불교 복지관들이 생겨나야 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펼치고 포교의 바탕을 일구기에 바쁘긴 하다.

양재, 도여와 같은 부업기 능훈련으로 주부들의 취업의

장은 많았다.

복지관 운영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이 재정난과 인력난이라고 말하는 복지관 관계자들은 불교복지관을 운영해나갈 불자 인력양성과 재정지원에 불교계의 장기적인 계획과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으로 전국에 계속적인 불교복지관 건립으로 지방화시대 대비한 전국 포교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은지 기자)

어린이회 졸업법회통해 중학생회로 유도

조계사 어린이법회, 사천왕사 어린이법회, 능인선원 어린이법회 등 대부분의 사찰과 포교당이 졸업법회와 환송회를 겸한 법회를 열어 6학년 졸업생들을 자연스럽게 중학교 학생회로 인도하는 등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19일 조계사어린이

회 졸업법회를 통해 이제 어린이법회를 떠나 중학생이 되는 어린이들을 환송하고 지속적인 불교신행활동을 권장하기 위해 학생회로 인도 했다.

이날 예비 중학생들에게 학생회 가입과 활동에 대해 설명한 조계사학사회 박상희 교사는 “국민학교를 잘 졸업하

고 어린이에서 청소년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중학교 1학년학생들에게 자립심을 키워주고 스스로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들의 올바른 신생활을 위해서는 부모의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제 연초도 지나 새해의 새로운 생활에 점점 자리를 잡아갈 시간이다.

지난 연말과 연초의 술 때문에 여러가지 일화들을 남긴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쩜개없는 무덤이 없다고 다 마실만한 그럴듯한 이유들을 분명

사람이 도무지 기억에 나지 않아 하는 소리다. 함께 이틀 동안이나 술을 진탕 마시고 또 그 함께 마신 사람을 잊은 거다. 만성적인 술중독은 기억력과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기억의 왜곡이란 실제 경험했던 기억을 그대로 되살리는게 아니라 혼자 각색하여 그 각색된 내용이 실제 경험되었던 사건처럼 기억을 한다. 말하자면 잘못된

말로 자신의 실수를 은폐하려 들때가 많은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술꾼들의 이야기에 반신반의한다. 하지만 실제로 기억에 결손이 있다면 기쁘게 넘길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기억의 왜곡이란 실제 경험했던 기억을 그대로 되살리는게 아니라 혼자 각색하여 그 각색된 내용이 실제 경험되었던 사건처럼 기억을 한다. 말하자면 잘못된



이런 후 건강칼럼

술

<16> 기억력 감퇴

이 제시하고 마신다. 술뜨면 술뜨서 기쁘면 기쁘서 마시니깐 어떤 이유를 들어도 술 마실 이유는 분명하게 마련이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사업상의 일로 이들을 술독에 빠졌다가 나온 한 기업체의 과장이 곁에 누워있는

이 있으면 소위 코트사포프 중추군이란 이름이 붙는다. 기억의 결손은 어떤 사건을 시점으로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술을 마시면서 일어난 기억들은 대개 기억을 못한다. “술이 너무 과해서 혹시 실수한 것은 없는지 모르겠다”는

취중 실수·거짓말 예사...술개도 '몽롱'

각하고 그 왜곡된 내용을 덧살을 붙여 각색을 하며 이를 실제인양 말을 옮기게 되니 이를 작화증, 즉 말을 만들어 낸다는 것으로 설명한다. 취중의 약속들이 쉽게 다름의 핵심이 되는 이유는 이런 기억의 착오나 작화증 때문에 그렇다. 작화증을 가질 정도의 술꾼은 이미 중독자란 진단이 붙는다.

만화

법외구경

꽃의 장

꽃만을 따가는 꽃벌처럼

이항원

제3회 불교어린이지도자 양성과정

주간·야간 통신(비디오, 카세트)

- 취지**
본 교과과정은 불교 어린이 교사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고취, 그리고 조직적인 교육관리를 목적으로 기존 교사의 재교육과 초임교사의 기본교육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오니 변화하는 교사, 성장하는 어린이 법회를 위해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교육에 참여하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제방 스님 및 제가 교사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늘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교육불사에 전념하시길 기대합니다.
- 교육과정**

과 정	과 목
불교학과정	불교학개론, 불교교리발달사, 불교의식
교육학과정	교육학개론, 아동심리(학습심리, 발달심리, 상담심리)
불교교육과정	사찰 부처상아 지도법, 교사론, 불교의 아동관, 불교 교육방법론, 설법설계의 원리와 절차, 불교학교의 교육행정, 시청각교육원리 및 실제
지도실기	레크리에이션(게임송, 실내·외 게임, 포크 댄스, 캠프 진행, 잔불가 율동(제작원리)) 특별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오후행사, 기념행사 등)

- 교육기간 및 행사개요**
가) 교육기간: 1995년 3월 13일 ~ 6월 12일 (3개월)
나) 교육시간: 매주 월·수·금 **주간반**: 오후 2시 ~ 4시 **야간반**: 오후 7시 ~ 9시 **통신반**: 비디오 과정, 카세트 과정
다) 인 원: 각 반별 30명 (선착순 접수) 라) 수강료: 월 6만원
마) 교육장소: 불교교육연구원 (조계사 중문, 시사일본어학원 옆)
- 입학자격**
가) 어린이 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 나) 불교유치원 교사, 사찰 법사스님 및 어린이회 교사
다) 자녀를 지체로운 불자로 키우고 싶은 학부모
- 특전**
가) 불교교육연구원 수료증 및 연구원증 발급 나) 분원 및 외부강사로 활동 보장
다) 수료 후 사찰 어린이 법회 유급교사로 양선

불교교육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5 종로빌딩 3층 전화 725-7527~9

절찾아가는 길

점점 녹슬어가는 “우리절 이정표”
이젠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큰 맘 먹고 장만한 “우리절 이정표” 막상 비 오고 시간이 흐르면 녹슬고 철이 벗겨져 보기 흉해집니다. 간판을 자주 할 수도 없고, 철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고 보면, 처음부터 잘 만드는 곳에 맡기셔야만 합니다.

저희 「가람기획 이정표」는 녹이 슬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반영구적인 스텐레스 재질로 디자인까지 산뜻합니다.

또한 저희 「가람」에서는 불교의 전문화·고급화·대중화를 위하여 불교미술문화를 소재로한 디자인의 현수막과 전국사찰지도·사찰연혁판·계시판·리본·상패·포스터·팸플릿·세계불교기·법통기·만불기 등과 각종행사 기획을 맡아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가람기획」은 오직 「불자」됨을 자부하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110-1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0
☎ 720-5121, 2874 FAX 732-3769

가람쇼핑 대표 이주영 승장